

기후위기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동향과 미래 과제

채 정 민[†]

본 연구는 점차 현실화되는 기후위기와 인류의 피해에 대해 심리학적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Google Scholar에서 연구 논문과 서적을 탐색하여 연구 주제와 연구 방식 위주로 범주화했다. 핵심 키워드는, '기후위기', '기후변화', '기후재앙', '기후비상'과 '심리학'이었다. 이들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은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이들 논문과 서적에 대해서는 해외 연구 동향과 국내 연구 동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 비해 해외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들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이 꼭 심리학자는 아니었고, 기후학자, 환경학자, 교육학자, 언론학자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국내 연구 동향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태를 보였다. 다만, 해외 연구 주제와 논문 수에 비해 국내 연구 주제와 논문 수는 현저히 적었다. 더 더욱 국내에서는 심리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한 경우가 매우 적었고, 이들이 타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향후 국내 연구 과제와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기후위기, 재난, 심리, 대응, 교육

[†] 교신저자 : 채정민,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01133)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Tel : 02-944-5021, E-mail : minspin@hanmail.net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기후위기는 이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동작구에는 시간당 141.5mm라는 폭우가 내려서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어서 기후 위기에 의한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매년 폭우가 발생하였고, 2025년 8월 3일에도 전남 무안에서 시간당 14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렸다. 8월 4일에는 경남 남해안에 150~250mm가 예보되기도 했다. 이러한 극한 호우는 인간에게 재산 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낳았다.

기후위기에 의해서 산불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6년 고성 산불, 2019년 고성-속초 산불, 2020년 고성 산불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했다. 2021년 울진 산불과 2024년과 2025년 의성 산불 등이 초대형으로 발생되어 경상도 일대에 크게 피해를 주었다. 특히, 의성 산불에서는 소위 ‘도깨비불’이 발생되어 주민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전지구적 변화 양상으로 나타나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심리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28일에는 캐나다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큰 재산 피해를 주기도 했고, 미세먼지 대기질 지수(AQI) 100이 넘어서 인간의 호흡기 문제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게 만들었다. 이 산불은 캐나다 내에서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연기 등이 미국이나 유럽까지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위기에 의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남은 중요한 대비 기간도 길어야 10년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 대비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기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현실화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아직 미흡하고, 특히 국내에서는 더 더욱 미흡하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위기에 대한 기존 심리학적 연구를 개관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용어 측면에서 기후위기와 유사하게 거론되는 영어인, 기후변화(Climate Change), 기후재앙(Climate Disaster), 기후비상(Climate Emergency) 등이 있다. 이들 용어의 의미가 다소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표해서 기후위기에 초점을 맞추겠다.

기후위기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하는 기후 변화가 전 지구적 재앙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 기후위기는 주로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연적 원인은, 화산 폭발, 대기 조성의 변화, 태양활동,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변화,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등이 해당된다. 인위적 원인으로는 강화된 온실효과, 에어로졸의 증가, 토지 피복의 변화, 삼림 파괴, 농업과 목축업, 화석 연료의 사용 등이 해당된다.

이들 원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원인 제거와 감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물리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후위기 연구의 틀을 적용할 수 있다. 첫째 방법으로는,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변화 경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고기후자료(식물

표 1. 기후위기 연구 시나리오 예

2020년대	2050년대	2080년대
전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함	전 지구 평균 온도가 2~3도 상승이 예상됨	전 지구 평균 온도가 3도 이상 상승이 예상됨
대략 4억~ 17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임	대략 10억~ 2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임	대략 11억~ 32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임

화석, 고토양, 퇴적암 등) 이용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둘째 방법으로는 기후 시나리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전지구기후모델(GCM) 이용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필요성은 Bizikova 등(2015)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 있는 것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4차 평가보고서(2007)가 제시한 표 1과 같은 방식의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지역스케일로 연계시키는 기법인 상세화(downscaling) 적용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즉, 국가 단위에서 여러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후위기는 인간과 연관된 점도 많이 제기되었다. IPCC(2021)의 제6차 평가 보고서(AR6)에서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과학적 합의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인간이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등 온실가스를 발생시켜 지구 평균기온을 상승시키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데 과학자들 간에 97% 이상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인간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인간활동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한 심리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방 법

연구 대상자

Google Scholar에서 검색 키워드를 ‘기후위기’, ‘기후변화’, ‘기후재앙’, ‘기후비상’과 ‘심리학’ 이었다. 이들 용어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하기 위해서 기한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위기 의식이 국제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교토의정서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가 1997년 12월 11일 이후 연구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 동향 분석

위 검색 결과를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했다. 분석은 해외 연구 동향과 국내 연구 동향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내용과 연구 방식 위주로 분석하였다. 연구 동향의 하위 범주 구분은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White 등(2023)의 기존 연구 구분 방식에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점들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즉, 기후위기 관련 범주별 연구, 기후위기 인구통계학적 연구, 기

후위기에 대한 정신건강 연구, 기후불안 연구, 기후위기 통제가능성 연구,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 간의 괴리 연구, 기후위기에 대한 언론학적 관점 연구, 기후위기 관련 특별 연구 방식 이었다.

해외 연구 동향

기후위기 관련 범주별 연구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공간적 측면에서 구분하지 않고 연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분하여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 즉, 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하는 것은 전체 지구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이고, 공간을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은 특정 지역 수준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White 등(2023)은 지역 공동체에서의 정신건강 문제를 연구했다. 이들은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정신건강 상 취약한 공동체를 파악하려고 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총 1,828개의 연구들 중에서 해당 주제를 다룬 104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지역 취약자 등의 다양한 집단을 구분했고, 이들이 보이는 우울증, 자살률과 관련된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확인해냈다.

Dinar(2023)는 글로벌 차원에서 건강 문제를 연구했다. 그는 MEDLINE과 Google Scholar에서 PRISMA 체크리스트 가이드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연구 논문들을 개관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공의 건강 준비성 등이 확인되었다.

Gössling와 Dolnica(2023)는 항공여행 행동을 연구했다. 이들이 항공여행 행동을 기후위기

와 관련해서 연구한 목적은, 점차 항공여행 관련해서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탄소 배출 수준의 여객기를 이용한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탄소 배출 저감 여객기의 도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 여객기를 이용할 의사가 많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여행객들이 탄소 저감 방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밝혀졌다.

Doherty와 Clayton(2011)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서적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집단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집단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와의 연대, 환경운동 참여 등은 기후불안을 완화하고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인구통계학적 연구

기후위기를 성별이나 연령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경우가 있다.

Martin 등(2023)은 청년의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연구했다. 이들이 청년에 주목한 것은 이들이 기후변화에 의해 특별히 취약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는 체계적인 문헌연구를 통해 진행되었고, 핵심 키워드는 부정적 정서, 기후변화, 그리고 조사이었다. 연구 결과, 43개 연구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 중 28%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보면, 청년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었다.

Brophy 등은 청년의 생태불안을 연구했다. 이들이 청년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성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청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보아서이다. 이들은

문헌 연구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청년들이 점차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생태불안을 많이 겪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Bush와 Clayton(2023)은 성별을 구분하여 연구했다. 이들이 성별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성별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태도 등에서 차이가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의 국가별 경제 발전 정도 등에 대한 자료를 성별과 연관지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걱정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부유한 국가일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nugwa 등(2023)도 성별에 따른 민감성을 연구했다. 이들은 기후변화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하라사막 남부 지역에서 성별에 따른 기후변화 민감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지역은 주로 나이지리아이고 농업을 주로 하고 있어서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신건강 연구

Clayton 등(2017)은 환경 변화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즉, 기후재난(홍수, 산불 등)에 직접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 불안 등이 관찰된다고 밝혔다.

Clayton 등(2017)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이외에도 기후위기에 대한 정신건강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연구 주제를 제시한 경우도 있다. Koder 등(2023)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정신건강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뤄야 한다. 둘째, 청년들의 정신적 안녕감에

미치는 기후변화를 연구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태도 혹은 신념을 언급함에 있어서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을 연구해야 한다. 넷째, 심리학적 렌즈를 통한 기후 관련 작위(action)와 부작위(inaction)을 위한 동기화(motivation)의 이해를 연구해야 한다. 다섯째, 정신건강 임상가와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을 연구해야 한다. 여섯째, 심리학자의 책무를 연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입이다.

기후불안 연구

기후위기에 대한 정신건강 연구 중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한 예가 다음과 같다.

Marks 등(2021)은 10개국 10,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응답자의 59%가 “기후위기가 매우 걱정된다”고 답했고, 45%는 “기후위기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청소년층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Climate Anxiety)과 우울, 무력감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기후위기 통제가능성 연구

Epel 등(2025)은 기후위기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연구했다. 이들이 통제가능성에 주목한 이유는 인간의 노력이 기후위기를 감소시키고, 나아가서 인간의 건강과 생존을 지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Bush와 Clayton(2023)도 기후위기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연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성별에 따라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기후위기 감소를 위해 치러야 한다고 지각하는 비용이 경제적 발전이 많을수록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Kashima 등(2023)은 기후위기 관련 지속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을 연구했다. 이들이 이 주제에 주목한 이유는 인간이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기후위기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딜레마를 구성하여 연구 대상자들에게 게임식으로 제시하여 그 반응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기후위기를 통제하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이 드러났다.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 간의 괴리 연구

Gifford(2011)는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간의 괴리 가능성 즉, 거리감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이 거리감을 “심리적 장벽(Psychological Barriers)”으로 표현했다. 즉, 그는 많은 사람이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이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행동-태도 불일치’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van Valkengoed 등(2023)은 기존의 심리적 거리감 연구에 대해 지각의 문제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언론학적 관점 연구

기후위기에 대한 언론학적 관점 연구 그 자체는 심리학적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언론학적 연구도 심리학적 관점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참고할 만하다.

Bosshard 등(2023)은 대규모 면대면 상황과

온라인 투표 대조 연구를 했다. 기후위기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의 연구에 참여한 면대면 상황 연구 대상자는 3,102명이었고, 온라인 투표는 30,311명이었다. 이들 두 연구 방식에서 모두 기후위기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정통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Mahl 등(2020)도 여론조사 관련 연구를 했다. 이들도 Bosshard 등(2023)과 유사한 관점에서 여론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다만, 이들은 2015년에 1,477명, 2018년 1,014명, 2019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시계열적 측면에서 연구를 했다. 연구 결과,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긍정적인 태도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yes 등(2023)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했다. 이들이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의도는 기후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합의 내용에 대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기후학자들의 의견에 대해 일정 정도 수용하여 동기화 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rawley 등(2020)은 여론조사 관련 연구를 했다. 이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78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형식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 여론은 신념과 관심사, 이슈 현시성, 정부 행동의 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Bakaki와 Bernauer(2017)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관련 연구를 했다. 이들이 이러한 여론

조사 형식으로 연구한 의도는 글로벌 차원의 정상 지도자 회담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공공의 인식과 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 회담에 대한 선호 혹은 비선호인 것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공의 인식과 정책 선호도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기후위기 관련 특별 연구 방식

하나의 도시 차원에서 기후위기를 연구하기 위해 특정 도시를 하나의 실험실(living lab)로 설정하여 장기간에 걸쳐 연구하는 방식이 있었다. 이 방식은 2010년대 유럽의 몇몇 도시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박병열 등, 2025; 신상범, 2022; 박형웅, 2021; 최지은, 성정희, 2024). 2017년에는 한국리빙랩네트워크(Korean network of living lab)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나 전략이 수립되지 않아서 큰 실효성 있는 성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단적 관점의 연구도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Walawalkar 등(2023)은 행동변화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행동 변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면서 이론화를 추구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행동 관련 신념, 주관적인 규범,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Nay(2022)는 인간의 발달적 관점에서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므로 이에 맞춰 인간의 발달적이며 적응적인 과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연구 동향

기후위기 관련 범주별 연구

기후위기에 관해 전 지구차원이나 지역 차원 등의 범주별 연구는 심리학적으로 연구가 된 경우가 없었다.

다만, 신상범(2022)은 글로벌 차원과 로컬 차원에서 리빙랩 연구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기후위기 인구통계학적 연구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인구통계학적 연구를 진행한 심리학자는 박지혜 등(2022)이 유일하다. 이들은 청소년의 기후변화 인식과 정서 반응을 연구하였다.

심리학자가 아닌 청소년학자나 환경교육학자, 기후학자 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학적 주제를 연구한 것은 상당히 많다(예; 강다연, 2022; 강진영, 김병연, 2025; 권주영, 2023; 박민규, 2020; 박주원, 2021; 백성희, 2022; 백성희, 김찬중, 2019; 서금영 등, 2022; 양수정, 2024; 이해선, 호규현, 2024; 임만재 등, 2009; 임인재, 금희조, 2024; 현명주, 김남수, 2021; 홍승표, 2024; 황세영, 강경균, 2024).

이들 연구를 토대로 심리학적 연구의 주제를 좀 더 모색해 볼 수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김혜윤과 채수미(2024)는 기후재난 경험자의 기후불안이 환경친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높은 기후불안 점수는 환경친화적 행동을 유의미하게 높게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신건강 연구

문성원(2016)은 기후변화와 심리적 적응을 심리적 반응, 적응, 예방 방안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기후불안 연구

기후불안에 대한 연구를 심리학적으로 연구가 4건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이기영 등(2015), 안대천 등(2023), 김세현 등(2025), 김예진, 박태희(2025)의 연구였다.

이기영 등(2015)의 연구에서는 헬스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프레이밍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후변화방지 캠페인을 위한 메시지 프레이밍의 전략적 사용이라는 주제를 실험적 관점에서 다뤘다. 연구 결과, 프레이밍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프레이밍과 이슈관련도의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이슈 심각성 지각과 캠페인 태도 부분에서 관여도가 높은 실험 참가자들의 경우에만 이익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대천 등(2023)의 연구는 소비자 심리학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유형화와 지속가능 소비행태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에 기후변화라는 가치를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전국 성인 4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혁신추구형 이타주의자’, ‘성공추구형 이기주의자’, ‘안정추구형 미래지향자’의 3가지 집단이 삶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행태가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보면, ‘혁신추구형 이타주의자’와 ‘안정추구형 미래지향자’ 집단은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속가능 소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지속가능한 소비행위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현 등(2025) 등의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적 유창성과 기후 불안을 중심으로 소비의도를 확인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1,21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소비 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 수와 친환경 소비 의도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후 불안(동기)과 인지적 유창성(정보처리) 간의 매개 효과에서는 부모 성별과 자녀 수의 상호작용효과가 기후 불안으로 설명됨이 확인되었다. 자녀 수, 기후 불안, 친환경 소비의 간접효과 측면에서도 성별 차이가 유의미했는데, 이 효과가 여성에게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남성에게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김예진 등(2025)의 연구는 친환경 제품의 소비가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환경 소구와 사용편의성이 친환경 제품의 품질지각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연구는 성인 129명을 대상으로 실험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결과, 친환경 제품의 사용 편의성을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품질을 더 긍정

적으로 지각하였고, 나아가서 이 제품을 구매할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친환경 행동 동기가 낮은 소비자도 친환경 제품의 사용 편의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더 구매할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통제가능성 연구

기후위기 통제가능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 간의 괴리 연구

김영옥 등(2018)은 기후 변화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완화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위험 인식의 매개 효과와 효능감의 조절 효과 중심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승준, 김영옥(2019)은 한국인의 기후 변화 위험인식 유형에 따른 소통방안을 연구했다.

함승경 등(2020)은 해석수준과 대응수준이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거리의 매개효과와 미래/즉각적 결과 고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언론학적 관점 연구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는 함승경 등(2020)이 해석수준과 대응수준이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적 거리의 매개효과와 미래/즉각적 결과 고려의 조절효과 중심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 등이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관심 연구

기후위기에 국민관심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적 연구지만 심리학자가 참여하지 않은 한국환경연구원(KEI) 연구팀이 진행하고 있다. 2023년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국민의 74.2%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주요 환경 문제로는 1위가 쓰레기/폐기물 문제이고, 2위가 기후변화 문제였다.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1위가 기후변화(23.1%)이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환경 정보 제공이 충분한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37%로 충분하다는 의견의 2배이었다.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통로(복수 응답 가능)로는 언론 보도가 72.3%, 보도 외 프로그램이 56.1%, 소셜미디어가 46.7% 순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볼 때, 국민들이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높지만 관련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후위기 관련 특별 연구 방식

기후위기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심리학적으로 진행한 경우는 아직 없다. 이에 대한 연구도 더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논의

기후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고 향후 급속도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리학적 연구는 절실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심리학계에서

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좀 더 향후 연구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해외 연구 동향과 국내 연구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Google Scholar에서 앞서 기술한 방법으로 검색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분류된 범주는, 기후위기 관련 범주별 연구, 기후위기 인구통계학적 연구, 기후위기에 대한 정신건강 연구, 기후불안 연구, 기후위기 통제가능성 연구,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 간의 괴리 연구, 기후위기에 대한 언론학적 관점 연구,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관심 연구, 기후위기에 특별 연구 방식 이었다.

이를 토대로 해외 연구 동향과 국내 연구 동향을 비교해 보면 국내 연구가 대체로 미흡한 상황이다.

첫째, 기후위기 관련 범주별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신상범(2022)은 글로벌 차원과 로컬 차원의 연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특히 심리학자들이 전혀 연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기후위기 인구통계학적 연구는 국내에서 비교적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청소년에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었고,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지만 미흡한 상황이다.

셋째, 기후위기에 대한 정신건강 연구는 국내에서 조금 이루어졌고, 심리학자들이 연구하였다. 넷째, 기후불안 연구도 국내에서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리학자가 연구한 것도 극히 소수이었다.

다섯째, 기후위기 통제가능성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섯째,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 간의 괴리 연구는 국내에서 다른 주제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기후위기에 대한 언론학적 관점 연구는 국내에서 주로 언론학자들이 연구를 하였다.

여덟째,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관심 연구는 국내에서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의식조사 형태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에 특별 연구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종단적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리빙랩 연구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이 아닌 타 학문분야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들 연구의 성과는 여전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기후위기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학제적 관점과 정책지향적 관점을 가지고 정확한 방향 설정과 연구 틀을 마련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고, 향후 ‘기후심리학’수준까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상태에서 파악된 결과이므로 향후 진행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연구 자료와 결과들은 하나의 DB로 관리하는 심리학적 기구가 설립되어 연구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향후 활발한 연구와 다양한 정책 관련 활동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상학 등 기존 연구 분야와 협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적 수준의 연구 지원 하에 연구 진행을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체계성을 높이고 연구 범위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심리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연구비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험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가적 수준의 정책 기관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심리학계의 주기적인 학술 발표를 하고 기업, NGO 등과의 협업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와 사회에 심리학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환기가 가능하다.

향후 심리학계에서 연구할 수 있는 방향과 과제 내용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 방향과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식수준→‘기술수준→‘행동수준’의 관점을 적용한 패널 연구와 부분적 실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패널 연구를 통해서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연구 결과를 확보할 수 있고, 여기서 획득된 각종 시사점은 정부와 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실험 연구를 통해서 연구 주제의 정확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어서 연구 결과를 국가와 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둘째, 기후위기에 대한 지식 수준 패널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특히, 한국환경연구원과 같은 기관의 연구에 심리학자들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관기관과 인접 학문과 협동적이며 학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셋째, 기후위기에 대한 실제 행동 의도와 행동 유형화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이 점은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연구이다. 이 분야는 심리학자들이 상

대적으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넷째, 기후위기와 대처 방안과 관련된 정보 획득 채널 등에 대해서도 심리학자들의 기여가 절실하다. 이 점이 필요한 것은 앞서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 활동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인 인간들이 관련 정보부터 획득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으로 획득하게 되면 대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기후위기에 대한 정량화된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추적 관리하기 위해 심리적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지표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단순화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 관련자뿐만 아니라 세계, 국가, 사회, 그리고 인간들에게 인상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학이나 기후학 등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어서 심리학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에 의한 재난 상황에서 대비행동 시뮬레이션 연구, 리빙랩(Living Lab) 연구 등을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시뮬레이션 연구와 리빙랩 연구는 심리학이 아닌 타 영역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학계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여 근거기반의 정책 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도 적지 않다. 첫째, 해외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기존의 연구 성과를 총망라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방법론 상 한계가 있었다. 둘째, 국내에서 심리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심리학적 상상력을

본 연구자가 어느 정도 발휘하기는 했지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더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 주제를 제시하고 이들 내용을 가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다연 (2022). 행동 지향 과학교육 관점에서 탐색한 청소년 기후행동가들의 정체성 발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진영, 김병연 (2025). 기후 위기에 대한 고등학생의 감정 분석. *환경교육*, 38(1), 103-120.
- 권주영 (2023). 기후변화 교재의 그림이 초등학생의 기후변화 인식 및 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세현, 김현, 조연수, 정영주, 성용준 (2025). 친환경 소비 의도에 대한 부모 성별과 자녀 수의 상호작용효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적 유창성과 기후 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6(1), 125-151.
- 김영옥, 박단아, 민혜민 (2018). 기후 변화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완화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위험 인식의 매개 효과와 효능감의 조절 효과 중심 분석. *광고연구*, 118, 127-170.
- 김예진, 박태희 (2025). 친환경 소구와 사용편의성이 친환경 제품의 품질지각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6(1), 63-78.
- 문성원 (2016). 기후변화와 심리적 적응: 심리적 반응, 적응, 예방. *한국대기환경학회지*, 32(3), 237-247.
- 박민규 (2020). 가치지향 기후변화 메시지가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병열, 최재혁, 오현정, 손연아 (2025). 산·학·연 연계 환경문제 중심의 대학생 Living Lab(리빙랩) 활동 사례 연구. *에너지기후변화교육*, 15(1), 39-58.
- 박주원 (2021).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기후변화 태도와 학습경험, 위험인식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형웅 (2021). 사회문제 해결형 대학 리빙랩 프로젝트 수업의 의의와 효과적인 문제 정의 도출을 위한 활용 툴킷 개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10).
- 백성희 (2022). 고등학생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역량 검사도구 개발과 관련 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성희, 김찬중 (2019). 초등학생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와 관련된 변인 탐색. *환경교육*, 32(3), 348-360.
- 서금영, 김우현, 김현아, 이재형 (2013). 우리나라 청소년의 과학기술과 환경, 기후변화 관련 인식 연구. *한국기후변화학회지*, 4(4), 409-416.
- 신상범 (2022). 글로벌 환경 위기와 로컬의 대응: 순환경제와 리빙랩을 중심으로. *인간과 평화*, 3(2), 71-105.
- 신현정, 임성은, 강다연, 김찬중 (2022). 청소년 기후 시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신유물론적 관점을 토대로. *환경교육*, 35(1), 82-109.
- 안대천, 김재영, 정재현, 왕의니 (2023). 소비자

- 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유형화와 지속가능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4(3), 219-244.
- 양수정 (2024). 기후정의 메시지의 심리적 거리감과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 사이 공감의 매개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염정윤, 강선아 (2023). 2023 국민환경의식조사. *한국환경연구원*.
- 이기영, 이진균, 임연수 (2015). 기후변화방지 캠페인을 위한 메시지 프레이밍의 전략적 사용: 이슈관련도의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6(2), 249-268.
- 이승준, 김영옥 (2019). 한국인의 기후변화 위험인식 유형에 따른 소통방안. *한국행정연구*, 28(1), 1-31.
- 이혜선, 호규현 (2024). 기후변화를 향한 한국 청년들의 목소리: 기후변화로 인한 감정과 대화 시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8(5), 5-45.
- 임만재, 이우균, 손요환, 조용성, 최성호 (2009). 지구온난화에 관한 청소년의 인지도 분석. *에너지기후변화학회지*, 4(2), 65-76.
- 임인재, 금희조 (2024). 기후변화 뉴스 프레이밍이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개별 감정과 위험 인식의 매개 경로 중심. *방송통신연구*, 겨울호, 104-143.
- 최지은, 성정희 (2024). 기후적응 리빙랩 운영을 위한 인식조사: 연안 소도시 노년층 대상을 중심으로. *환경교육*, 37(3), 434-449.
- 함승경, 김혜정, 김영옥 (2020). 해석수준과 대응수준이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거리의 매개효과와 미래/즉각적 결과 고려의 조절효과 중심. *한국언론학보*, 64(4), 400-435.
- 현명주, 김남수 (2021). 경계의 관점으로 본 청소년의 기후결석시위: 정체성, 학교 교육, 시위문화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34(2), 151-166.
- 홍승표 (2024). 지역사회 기반 학습이 초등학교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역량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교육*, 63(3), 31-54.
- 황세영, 강경균 (2024).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실천 분석: 초·중등 교육에 갖는 함의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37(1), 181-201.
- Anugwa, I. Q., Obossou, E. A. R., Onyeneke, R. U., & Chah, J. M. (2023). Gender perspectives in vulnerability of Nigeria's agriculture to climate change impacts: a systematic review. *GeoJournal*, 88(1), 1139-1155.
- Bakaki, Z., & Bernauer, T. (2017). Do global climate summits influence public awareness and policy preferences concerning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Politics*, 26(1), 1-26.
- Bayes, R., Bolsen, T., & Druckman, J. N. (2023). A research agenda for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and public opinion: The role of scientific consensus messaging and beyond. *Environmental Communication*, 17(1), 16-34.
- Bizikova, P., Santoro, D., Marsella, R., Nuttall, T., Eizenschenk, M. N., & Pucheu Haston, C. M. (2015). Clinical and histological manifestations of canine atopic dermatitis. *Veterinary dermatology*, 26(2), 79-e24.
- Bosshard, A., Chatrou, A., & Brick, C. (2023).

- Climate concern and engagement: Large face-to-face and online polls by the Dutch non-profit Milieudefensie.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26, e6.
- Brophy, H., Olson, J., & Paul, P. (2023). Eco anxiety in youth: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32(3), 633-661.
- Bush, S. S., & Clayton, A. (2023). Facing change: Gender and climate change attitudes worldwi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7(2), 591-608.
- Clayton, S., Manning, C., Krygsman, K., & Speiser, M. (2017). Mental Health and Our Changing Climate: Impacts, Implications, and Guidan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d ecoAmerica*.
- Crawley, S., Coffé, H., & Chapman, R. (2020). Public opinion on climate change: Belief and concern, issue salience and support for government action.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2(1), 102-121.
- Dinar, H. H. A. (2023). Global Actions on Climate Change: The Health System Focus - A Systematic Review. *Saudi Journal of Health Systems Research*, 3(1-4), 1-9.
- Doherty, T.J. & Clayton, S. (2011). The psychological impacts of global climate change. *American Psychologist*. DOI:10.1037/a0023141.
- Epel, E. S., White, K. E., Brownell, K. D., Rodin, J., Hollis, A. L., Diefenbach, M. A., Alegria, K. E., Fomer, E., Czajkowski, S. M., Bacon, S. L., Revenson, T. A., Ruiz, J., & Maibach, E. (2025). Transforming health psychology and behavioral medicine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 call for strategic research and advocacy. *Health Psychology*.
- Gifford, R. (2011). The dragons of inaction: Psychological barriers that limit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66(4), 290-302.
<https://doi.org/10.1037/a0023566>.
- Gössling, S., & Dolnicar, S. (2023). A review of air travel behavior and climate change.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14(1), e802.
- Kashima, Y., Sewell, D. K., & Li, Y. (2023). Sustainability, Collective Self Regulation, and Human - Nature Interdependence. *Topics in Cognitive Science*, 15(3), 388-412.
- Koder, J., Dunk, J., & Rhodes, P. (2023). Climate Distress: A Review of Current Psychological Research and Practice. *Sustainability*, 15(10), 8115.
- Legg, S. (2021). IPCC, 2021: Climate change 2021-the physical science basis. *Interaction*, 49(4), 44-45.
- Mahl, D., Brüggeman, M., Guenther, L., & De Silva Schmidt, F. (2020). *Public opinion at a tipping point: Germany's path to engaging with climate change. Down to Earth*.
- Marks, E., Hickman, C., Pihkala, P., Clayton, S., Lewandowski, E. R., Mayall, E. E., & Van Susteren, L. (2021). Young people's voices on climate anxiety, government betrayal and moral injury: A global phenomenon. *Government betrayal and moral injury: A global phenomenon*. DOI:10.1016/S2542-5196(21)00278-3.
- Martin, G., Cosma, A., Roswell, T., Anderson, M.,

- Treble, M., Leslie, Card, K., G., Closson, K., Kennedy, A., & Gislason, M. (2023). Measuring negative emotional responses to climate change among young people in survey research: A systematic review. *Social Science & Medicine*, 329, 116008.
 - Nay, J. J. (2022). Climate-Contingent Finance. *Berkeley Bus. LJ*, 19, 336.
 - Solomon, S. (2007, December). IPCC (2007): *Climate change the physical science basis*. In Agu fall meeting abstracts (Vol. 2007, pp. U43D-01).
 - Walawalkar, T. P., Hermans, L. M., & Evers, J. (2023). Evaluating behavioural changes for climate adaptation plann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66(7), 1453-1471.
 - White, B. P., Breakey, S., Brown, M. J., Smith, J. R., Tarbet, A., Nicholas, P. K., & Ros, A. M. V. (2023). Mental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among vulnerable populations globally: an integrative review. *Annals of global health*, 89(1), 66.
- 논문 투고일 : 2025. 08. 04
1 차 심사일 : 2025. 08. 13
게재 확정일 : 2025. 08. 20

Trends of Psychological Research on Climate Crisis and Future Tasks

Jung-Min Chae

Seoul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rends of psychological research on the climate crisis and human damage that are becoming more and more realistic and to draw future tasks. For this purpose, Google Scholar was utilized to explore research papers and books and those were categorized by research topics and research methods. The main keywords were 'climate crisis', 'climate change', 'climate disaster', 'climate emergency' and 'psychology'. Searches using these keywords were conducted in both Korean and English. These papers and books were divided into international and domestic research trend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many studies on climate crisis in foreign countries compared to domestic ones. Of course, even though these studies included psychological topics, the scholars who conducted these studies were not necessarily psychologists, but experts in various disciplines such as climatologists, environmentalists, educators, and journalists. Domestic research trends showed a similar pattern. However, the number of domestic research topics and papers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research topics and papers. Moreover, in Korea, there were very few cases where psychologist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nd they rarely collaborated with experts in other disciplines. Based on these points, future domestic research tasks and research direc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 climate crisis, disaster, psychology, coping, education